

# GAAS :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

##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(금융감독원)

### 1. 개요

-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(이하 '10차 사전통지')를 실시함
- 본통지(2024.11.12(화))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'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
  - (주기적 지정)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(\*)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(금감원)에서 지정함
  - (직권 지정) 증선위 **감리결과**에 의한 **감사인 지정조치**, 선임기한 내 **감사인 미선임**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(직권 지정사유) 감사인을 지정
  -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·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,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

(\*)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) 이상 비상장회사 &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% 이상 &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

구 분	주요 직권지정 사유
기존 지정사유	① 상장예정법인, ② 감사인 미선임, ③ 감리결과 조치, ④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 관리종목, ⑥ 횡령·배임 발생 등
신설	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, ②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, ④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 재무기준(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, 負의 영업현금흐름, 이자보상배율 1미만) ⑥ 과거 3년간 최대주주(2회)·대표이사(3회) 변경 등

(\*)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

2.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

-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,234사(상장 909사(\*), 비상장 325사)로 전년 10차 사전통지(1,261사 [상장 937사+비상장 324사]) 대비 27사 감소
- 이중 540사는 '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,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(\*\*) 회사임

(\*) 유가증권시장 320사, 코스닥시장 561사, 코넥스시장 28사

(\*\*) 유가·코스닥 상장회사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

'24.10월 사전통지 현황 (단위: 사)									
구분	상장(a)			비상장(b)			합계(a+b)		
	신규	연속	소계	신규	연속	소계	신규	연속	소계
주기적지정(①)	178	299	477	6	23	29	184	322	506
직권지정(②)	103	329	432	253	43	296	356	372	728
합 계(①+②)	281	628	909	259	66	325	540	694	1,234

\* 유가·코스닥 상장회사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

- 주기적 지정(신규 지정: 184사): 상장사 178사와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 지정됨
- 직권 지정(신규 지정: 356사):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(유가 16사, 코스닥 63사, 코넥스 24사) 103사,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가 신규 지정됨
  - 지정사유: 상장예정 238사(신규 지정의 66.9%),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(14.9%) 등

3. 유의사항

- (감사인 재지정)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,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
  - (재지정 요청사유) ①~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,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·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
    -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(상향 재지정)
    -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(하향 재지정)
    -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(동일군 재지정)
    -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
    - ⑤ 연결 지배·종속회사(둘다 지정감사시)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

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

⑦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

- **(의견제출)** 상·하항 및 동일 감사인군(群)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,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(또는 본통지 1주 이내)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

- 하항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, 특히 하항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(\*)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

-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(비감사용역 수행, 재무적 이해관계 등)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

- (제출방법)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(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)

\* 하항재지정은 회사요청,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
- **(계약체결)**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,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,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

##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5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

'24.10.15.		'24.10.29.		'24.11.12.		'24.11.19.	
<b>사전통지대상</b>		<b>사전통지</b>		<b>본통지대상</b>		<b>재지정 요청</b>	
선정 및 통지*	(2주내)	의견제출	(2주)	선정 및 통지*	(1주내)	(회사→금감원)	
(금감원→회사)		(회사→금감원)		(금감원→회사)			

\*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인 약 2~3일 후 수령 예상

-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,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, 지정감사인, 지정기간 및 '분산지정'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 추가함

-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

-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

-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: 국번 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
- 화면 상단의 '접수현황'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'지정현황조회'를 클릭

## 4. 향후계획

-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, 11.12일에 본통지 예정
  -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의
  - 기한내(2주)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,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

## 제7회 ‘회계의 날’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,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「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 논의(금융위원회)

### 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제7회 회계의 날(10.31일)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함.
-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,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,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

### 2.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

- **(주기적 지정 유예 검토)**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
  - '24.4월 정부는 회계·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방침을 발표하고, 관계기관 T/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 중
  -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, 지정 '면제'보다 '유예'(3년)로 검토('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후, '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)
  -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, 우수기업 중에 회계·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
- **(IFRS 18)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·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/F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,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,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**

- IFRS 18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,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,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, 투자,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하여 표표시하도록 하는 것임. 이는 국내에서 현재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,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도입 연착륙 지원이 필요
- IFRS 18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, 경영진이 투자자와 공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없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경우, 이를 MPM(\*)으로 보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임
- 특히, 산업별·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/F에 참여토록 하고,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 및 교육·안내도 강화할 예정
-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, 의견수렴을 거쳐 '25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('27년 시행 예정)

\* MPM (Management-defined Performance Measures)은 경영진이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'경영진의 견해'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'공개적인 의사소통 방식'으로 제공되는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로 정의

## ■ (감사부담 경감)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 관련 기업의 적용부담 완화

-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
- 중견·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연장 등

#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(한국공인회계사회)

## 1. 개요

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외부감사법”)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함.

## 2. 주요 개정사항

### (1) 법규 개정사항 반영

- ① **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반영:**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/운영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
- ② **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변경사항 반영:**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개별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 개정 내용을 상세지침에 반영

③ **감사인 경력별 가중치 변경사항 반영:**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외감규정”이라 한다)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의 경력별 **가중치(\*)**를 규정 및 상세지침에 반영

\* 개정전 외감규정에서는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[별표 11]에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15년으로 표시함

- 개정된 외감규정에서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실제경력인 20년으로 수정

## (2)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통합감사, 학습효과,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

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, 학습효과,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

- 또한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감사 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

## (3)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

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외에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계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에 설명을 추가

## (4)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

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함

## (5) 자회사 수가감요인 적용 방법

기존 FAQ상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FAQ에 있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

## (6) 단계적 적용률

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, 2026년 이후 적용률은 2025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

# 3. 향후 계획

-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('24.11.1. ~ '24.11.21.)
- 공청회 개최('24.11.20.)
- 공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검토('24.11.21.~'24.12.3)
-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('24.12.4)
-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('24.12월 중순)